18, May, 2026 Vol. 117

| Bi-Weekly |

신영 ESG

" SFDR2.0, 보다 강화된 ESG 펀드 라벨 자격을 요구해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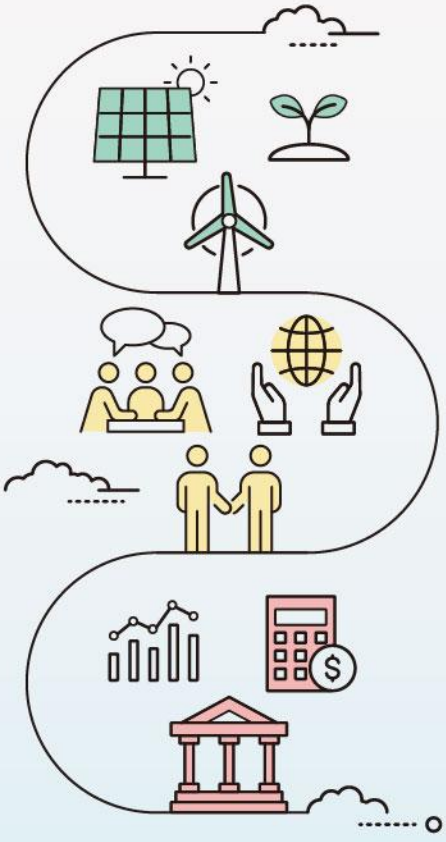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NC

ESG ETF 따라잡기
Hennessy Sustainable ETF (STNC)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oh.gwang-young@shinyoung.com

SFDR2.0, 보다 강화된 ESG 펀드 라벨 자격을 요구해

EU의회, 보다 강화된 ESG 펀드 라벨 체계를 담은 SFDR 개정안 발표

강화된 자격을 요구하는 SFDR 개정안: 각 유형별 최소 70% 투자 요건, PAI 및 주주관여 전략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자격 요건 준수해야

최근 EU 의회는 지속가능 금융 공시 제도(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후 SFDR) 검토에 관한 새로운 초안 보고서를 발표함. 게르벤-얀 게르브란디 유럽의회 의원이 제출한 본 보고서 초안에는 주요 제안 사항으로, 새로운 ESG 금융상품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새로운 분류 체계의 모든 유형은 자산의 최소 70%를 해당 유형의 지속가능성에 맞게 투자해야 함. 또한 주요 부정적 지표(Principal adverse impact, 이후 PAI) 공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관여 전략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요소를 언급하지만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른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강화된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의 SFDR 개정안에 대한 EU 의회의 입장을 담은 제안으로 새롭게 제안된 지속가능 분류 체계 하에서 향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투자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현행 규정 제8조와 제9조의 공시 제도가 사실상의 지속가능성 라벨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로 개정안이 검토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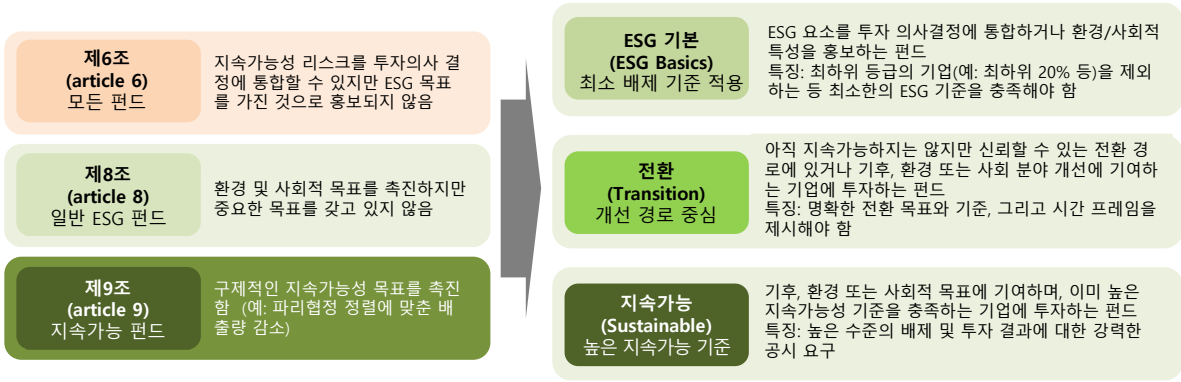
먼저 SFDR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운용사와 같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023년 EU집행위원회가 시행중인 SFDR 현황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현행 규정의 공시 요건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여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특히 현행 규정 제8조와 제9조의 공시 제도가 사실상의 지속가능성 라벨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조사결과 투자자들은 제9조에 따른 펀드는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고, 제8조에 따른 펀드는 ESG 요소를 강력하게 통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린 워싱 위험이 높다고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상품 분류 체계를 제안함.

EU 집행위원회는 ESG 관련 주장을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간소화된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지속가능성(Sustainable)', '전환(Transition)', 'ESG기초(ESG Basics)'로 구성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SG 관련 주장을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간소화된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 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으로 기후, 환경 또는 사회적 목표와 같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미 높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임. 두 번째는 '전환(Transition)'으로 아직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경로에 있거나 기후, 환경 또는 사회 분야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임. 세 번째는 'ESG 기초(ESG Basics)'

로 지속가능성 또는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특정 ESG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업에 집중하거나 최악의 ESG 성과를 내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ESG 투자 접근 방식을 통합한 상품을 의미함.

도표 1. SFDR 개정안에 따른 ESG 펀드 분류체계 변화 예시



자료: EU집행위원회, EU의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금번에 발표된 EU의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훌륭한 출발점'으로 지지하면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련의 수정안을 제시함. EU 집행위원회 원안에 총 51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중 몇가지 언론에서 중요한 제안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AI 지표 공시의 의무화: 3단계로 PAI 정보 공시 → 동일 카테고리 펀드 간 직접 비교 가능 →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첫째, 핵심 부정 영향(PAI) 지표 공시의 의무화
PAI란 투자상품이 환경·인권·노동·탄소배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함.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펀드는 ①의무 PAI 지표 공시 ②해당 투자에 중대한(material) PAI 지표 보완 공시 ③기타 PAI 지표의 자율 공시 등 3단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에 운용사의 공시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동일 유형 펀드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SG 미분류 금융상품은 EU기준 미충족을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함

둘째, ESG 미분류 금융상품에 대한 면책 문구(Disclaimer) 의무화
ESG 관련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금융상품에 면책 문구(disclaimer)를 의무화함. 면책 문구는 예를 들어 '본 상품은 지속가능 금융상품 정의 및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으로 EU기준 미충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함.

새로운 분류 체계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펀드는 주주 관여(Engagement) 전략을 자세히 공시해야

셋째, 주주 관여(Engagement) 전략 공시 의무화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른 라벨을 취득한 펀드는 지속가능성 관련 관여(Engagement) 전략의 내용, 해당 펀드가 촉진하는 지속가능성 목표와의 정

합성, 실행 방식 등을 공시해야 함.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확하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Comply-or-Explain). 이는 단순히 ESG 관행 우수 종목을 편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용사가 실제로 투자 기업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ESG기본 라벨도 진입 기준이 상향됨 → 20% Exclusion Rule 적용

넷째, 가장 기본 유형인 ESG기본(ESG Basics) 라벨도 진입 기준이 강화됨
ESG Basics 라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니버스 또는 벤치마크 내 ▲ESG 등급 하위 20% 종목을 배제하거나 ▲선택 지표 기준 하위 20%를 배제한 후 평균을 초과해야 함. 이에 따라 일부 ETF나 인덱스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방법론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또한 일부 Best-in-Class전략의 펀드 경우 기존에는 '평균 ESG 등급 이상'이면 라벨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라벨 취득이 어려워져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이 필요해짐. 또한 ESG 등급 하위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로 인해 관련 투자자금 이탈이 촉진될 수 있어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EU 택소노미 정렬 경제활동 비율 기준이 15% → 20% 상향 조정됨

다섯째, EU 택소노미 정렬 경제활동 비율 기준 15% → 20% 상향
전환(Transition)·지속가능(Sustainable) 유형 획득을 위한 EU 택소노미(Taxonomy) 정렬 경제활동 비율 요건이 기존 15%에서 20%로 5%pt 상향 조정되며 진입 기준이 강화됨.

CTB, PAB 추종 펀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삭제 → 여타 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라벨 취득이 가능해짐

여섯째, CTB, PAB 추종 펀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삭제
EU 기후전환 벤치마크(CTB·Climate Transition Benchmark) 또는 파리정렬 벤치마크(PAB·Paris-Aligned Benchmark)를 추종한다는 사실만으로 라벨 요건 충족을 자동 인정하던 세이프하버 조항이 의회 수정안에서 삭제됨. 이에 따라 해당 벤치마크 추종 펀드도 여타 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라벨 취득이 가능해짐. 실제 해당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 펀드의 경우 ESG라벨 획득을 위해 새로운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EU SFDR이 글로벌 ESG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개정안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이번 초안 보고서는 6월에 EU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에 제출될 예정이며, 해당 제안에 대한 표결은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 한편 의회의 이 강력한 수정안은 EU 27개 회원국들의 정부대표가 모인 EU이사회에서 일부 자국 펀드 산업 부담을 우려한 국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분위기임. 하지만 SFDR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던 만큼 일부 추가 수정되더라도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EU SFDR이 글로벌 ESG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개정안 진행 경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임. 또한 사전에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론과 전략 등에 대해서 개정안 관점에서도 살펴보고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

ESG 이벤트 & 신영's View

포드도 소프트뱅크도 AI 전력난에 배터리공장 짓는다

- 이란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이 강화되며 구조적인 ESS 수요 확대 기대감도 더욱 커진 상황
- 소프트뱅크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GWh급 배터리 양산 거점을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수직계열화 전략 강화
- 포드가 데이터센터 및 유틸리티 시장을 겨냥한 컨테이너형 BESS 'DC 블록'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Comments

- 주요 셀 메이커들은 미국 ESS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8~2030년 150~160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전력 수요 전망치 상향에 따라 눈높이는 지속 높아질 전망
- 이 과정에서 공급망 정책 기반 중국 밸류체인에 대한 장벽도 설정되고 있음
- Ford가 추진 중인 BESS 사업 또한 중국 CATL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공급망 리스크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전망

– Analyst 박진수

이란발 나프타 쇼크, 아시아 포장재 공급난 확산

- 이란발 석유 공급 차질로 중동산 나프타 조달이 막히며, 아시아 플라스틱 포장재 공급난이 확산.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핵심 투입재로, 공급 차질이 필름·용기·포장재 가격과 납기에 직접 전이되는 구조
- 공급 부족은 식품·의료·소비재용 포장재 확보 지연으로 연결. 특히 식품 포장과 의료용 플라스틱은 단기 대체가 어려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포장비 인상으로 반영될 가능성 확대

Comments

- 핵심은 유가 상승보다 '중동산 나프타 물류·조달 리스크'가 아시아 제조 공급망 병목으로 전환됐다는 점. 원료 조달 차질이 단순 원가 부담을 넘어 포장재 납기 지연, 재고 부족, 식품·의료 소비재 공급 불안으로 확산되는 양상
- 단기적으로는 대체 조달과 재고 소진으로 일부 대응 가능하나,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석유화학·포장재 밸류체인의 원가 부담과 공급 안정성 우려가 지속될 전망

– Analyst 신홍주

주주권 키웠더니 행동주의 폭주…일본, 다시 조인다

- 10년 가까이 확대해온 주주 권리를 다시 제도적으로 조이기 시작 → 일본 법무성과 집권 자민당이 주주제안 자격 요건 강화를 검토 중
- 지배구조 개혁이 키운 행동주의…제안 2024년 46곳에서 2025년 52개사로 최대 기록
- 기업 반발 커지자 규제 카드 꺼냈다…주주제안 요건 손질
- "영향 제한적"…규제 논의에도 행동주의 지속

Comments

- 일본의 행동주의 증가 배경에는 일본 정부 정책이 결정적 역할 → 2010년대 중반 아베노믹스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며 주주 권한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해 옴
- 긍정적 역할 :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사업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기업 경영을 압박 → 자본 효율성 개선 → 일본 증시 상승 뒷받침 역할
- 부작용 : 단기 주주환원 요구 증가 → 기업들은 장기 투자와 연구개발 여력 위축으로 반발
- 국내는 행동주의 증가 초기단계로 로 향후 선진 사례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게임/엔터테인먼트 담당 김지현 T.02)2004-9964 / kim.ji-hyun@shinyoung.com

NC (036570.KS)

매수(TP 360,000원)

ESG 로드맵에 기반한 성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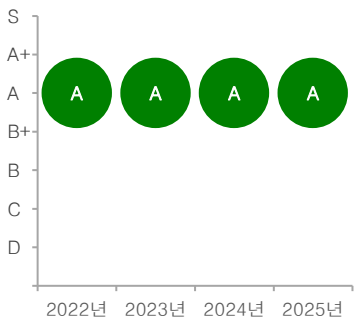
현재주가(05/15) 271,5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B+	A	A
Bloomberg	89.4	37.7	99.1	44.3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5. 15)

시가총액(억원)	58,492
배당수익률(26F,%)	2.1
외국인지분율(%)	35.7
주요주주 지분율(%)	
김택진 외 16 인	12.4 %
Saudi Electronic Gaming	9.4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7	28.1	17.3	74.6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0.8	-5.9	-37.2	-38.9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191.2	94.4
폐기물 발생량	톤	528	508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	-
환경경영 인증	ISO 14064		
환경경영 조직	ESG 경영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FR	%	0.19	0.25
기간제 근로자 비율	%	4.1	2.6
여성 근로자 비율	%	35.5	32.7
사회 공헌지출	억원	3.6	1.2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대금 지원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4 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예정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결산배당 (1 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8 회, 출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엔씨,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서 최고 수준 평가…

(녹색경제신문, 26.05.10)

- 엔씨는 S&P Global이 발표한 '2026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지수(Dow Jones Best in Class Indices, DJBIC) 아시아 퍼시픽'에 3년 연속 포함됨
- DJBIC는 S&P Global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성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평가지표다. 그 중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가총액 상위 600개 기업 중 상위 20% 기업에게만 부여함

엔씨, MSCI ESG 최고등급 'AAA' 획득

(헤럴드경제, 26.04.09)

-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6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음
- 엔씨소프트는 2022년 AA 등급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이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평가에서 AAA로 상향됐다. 인적자원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윤리·준법 체계 등 주요 항목에서 평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게임업계, 소수점 단위 꼼꼼한 ESG 실천… 탄소·AI·지배구조 삼박자 혁신 '눈길'

(그린포스트, 26.02.26)

- 엔씨소프트는 2021년 업계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한 이후,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KCGS) 종합 A등급을 5년 연속 유지하고 있음
- 탄소 배출을 공급망 전반으로 시야를 넓힌 곳은 엔씨소프트임. 이 회사는 국내 게임사 중 선도적으로 글로벌 8개 자회사의 Scope 3(밸류체인 전 과정)를 공시 중이며, 2025년에는 산정 카테고리를 7개로 확대함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0년	[S] 미래세대 창의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토리' 사업을 운영
	[S] 온라인 통합구매시스템 운영 시작
2021년	[G]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여 중장기 인권경영의 기반 마련
	[ESG] 게임 업계 최초 ESG 경영위원회 신설
2022년	[S] 사회공헌 프로젝트 NC [WITH] PLAY 시행
	[ESG] MSCI ACWI Media & Entertainment Index AA 등급 획득
2023년	[E]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
	[E] 판교 R&D센터와 엔씨타워1DML LEED 제도 GOLD 등급 취득
	[ESG] MSCI ACWI Media & Entertainment Index AA 등급 획득
2024년	[S] 게임 스타트업, 인디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지스타, 인디크래프트 등 후원
	[S] AI 윤리 콘퍼런스 <FAIR AI 2024> 개최
	[ESG] MSCI ACWI Media & Entertainment Index AA 등급 획득
2025년	[G] 인권경영선언문 등 정책 개정 및 인권경영 실행 체계 구축
	[ESG] S&P Global Interactive Media, Services & Home Entertainment 평가
2026년	[ESG] MSCI ACWI Media & Entertainment Index AAA 등급으로 상향 획득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ESG 경영 활동

NC는 1997년 설립 이후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소울〉 등 주요 IP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게임 기업임. 최근에는 게임을 넘어 AI, 디지털 휴먼, 콘텐츠 플랫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기술 기반 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사는 ESG를 단순한 친환경 활동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NC는, AI 윤리, 디지털 책임, 정보보안 등을 ESG의 핵심 축으로 설정. 특히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서 문화·인종·성별·언어 다양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강화함. 혐오·차별 표현 검수 및 Culturalization 체계를 운영 중. 또한 AI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인간 중신의 AI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B2C 기업인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ISO27001, ISMS-P 등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운영 중이며, 라이브 서비스 기반 게임 기업 특성상 유저 신뢰를 ESG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ESG 활동을 단순한 평판 관리 차원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AI·콘텐츠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ESG 체계 구축

게임과 AI 기술이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콘텐츠 윤리, 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 특히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유저 커뮤니티와 장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을 보유함. 이에 따라 동사는 콘텐츠 운영 과정에서 유저 경험과 디지털 안전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임. 확률형 아이템, 커뮤니티 독성, 혐오 표현, 개인정보 보호 등 글로벌 게임 산업 내 주요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동사는 향후 AI 기술과 콘텐츠 사업의 결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ESG를 기술 윤리와 글로벌 문화 다양성 대응 역량으로 연결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친환경 기조 순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기업 방향성을 구체화는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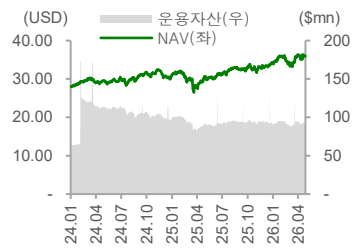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oh.gwang-young@shinyoung.com

Hennessy Sustainable ETF (STNC)

Key Facts	
상장일	2021/03/15
기초지수	-
구성종목수	49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92.0
시장가격(USD)	35.79
NAV(USD)	35.84
총보수(%)	0.85
운용사	Hennessy Advisor

Top Holdings	(기준일: 2026.05.14)
Intel Corp	5.30%
Jabil Inc	3.50%
Corning Inc	3.40%
Applied Materials Inc	3.40%
Ross Stores Inc	2.90%
Lam Research Corp	2.90%
Federal Realty Investment Trust	2.90%
Constellation Brands Inc	2.80%
TJX Cos Inc/The	2.80%
PepsiCo Inc	2.80%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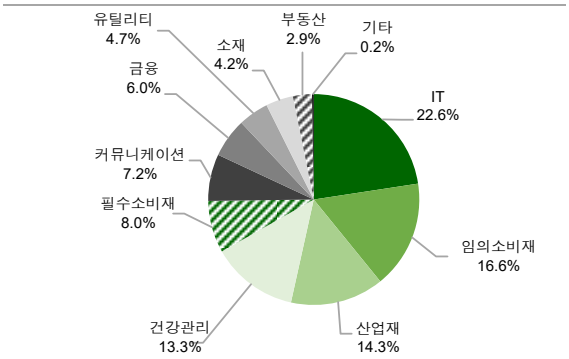
ETF 개요

Hennessy Sustainable ETF (STNC)는 2021년 3월 상장된 ETF로, 스탠스 캐피털(Stance Capital, LLC)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대형주(러셀 1000 및 S&P500에 포함된 기업)에 순자산 가치의 최소 80%를 투자하는 액티브 ETF임.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 대상 선별하는데 먼저 대형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칙 기반 방법론을 적용하여, 에너지 생산성, 탄소 집약도, 물 의존도, 폐기물 발생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KPI와 혁신 역량, 최고경영자/평균 직원 급여, 안전 성과, 직원 이직률, 리더십 다양성, 납세율, 지속가능성 성과 연동 보너스 비율 등 지배구조 관련 KPI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함. 이러한 KPI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무기, 담배 또는 화력 발전용 석탄 관련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 이후 재무, 위험 및 기타 요소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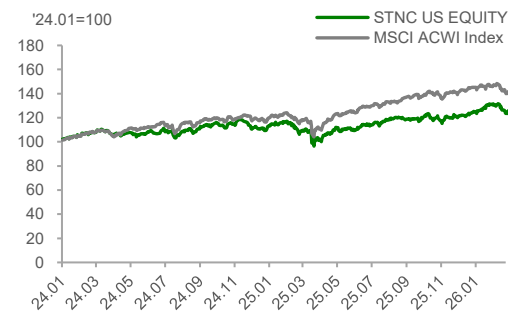
STNC는 ESG 투자와 머신러닝, 위험 최적화, 액티브 투자 전략을 결합한 ETF로 주로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지만, 중소형주 기업도 투자 가능함. 이에 다양한 규모의 미국 기업 중 ESG에 우수한 관행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함.

STNC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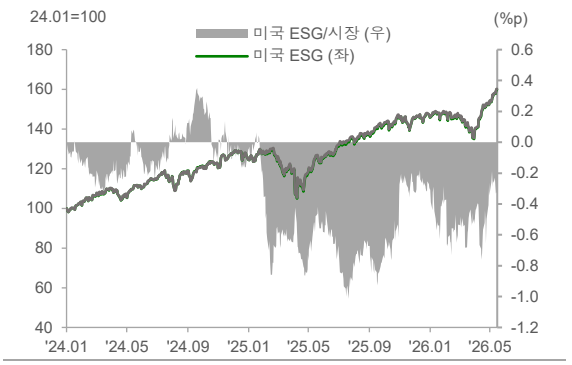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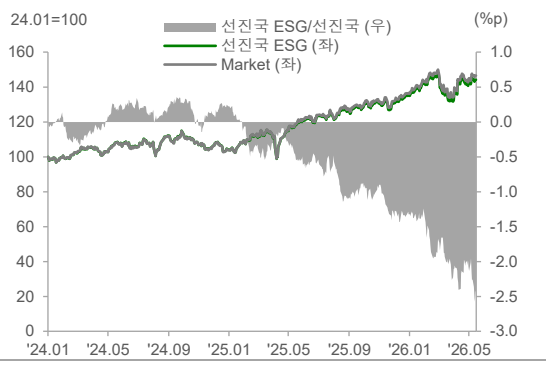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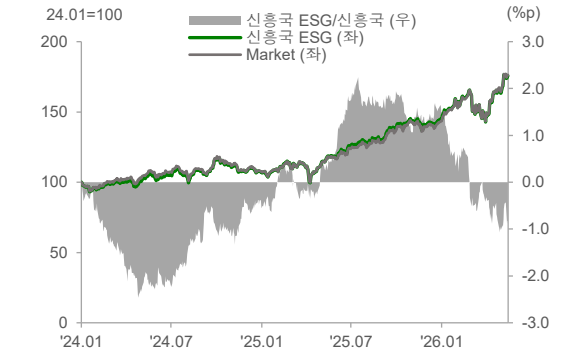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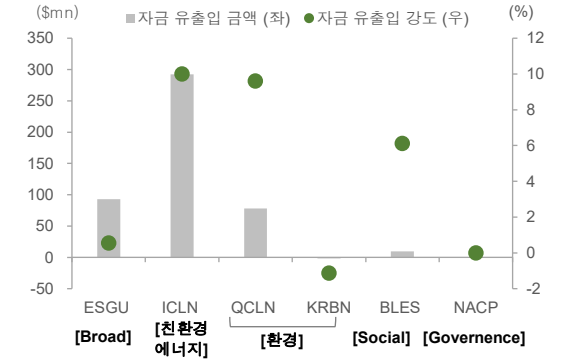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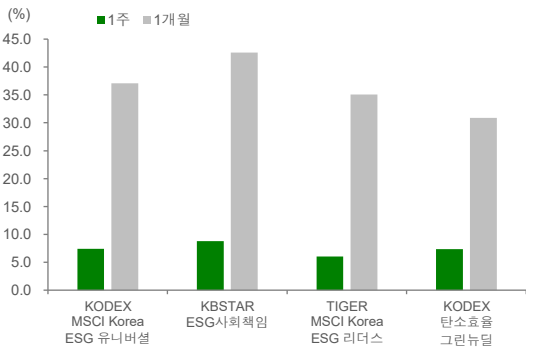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3,342	60	74.8%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8,132	13	14.5%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01	13	5.5%	13.4%
4	Social	5,912	5	4.7%	5.2%
5	Governance	446	3	0.4%	3.1%
6	기타	49	3	0.0%	3.1%
ESG 전체		**124,781**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114	0.62	6.19	8.92	9.81	93	247	0.5	1.4
	ESGV	13,092	1.11	7.55	11.09	10.82	34	176	0.3	1.3
	SUSL	1,126	0.61	7.35	8.81	10.76	6	7	0.6	0.6
	NULV	2,084	-0.28	4.92	5.04	12.04	5	-46	0.2	-2.2
	NUSC	1,282	-1.79	1.29	1.27	12.07	2	-86	0.2	-6.7
	ESGE	6,969	-0.17	7.84	9.56	20.98	-43	154	-0.6	2.2
	ESGD	11,475	-0.24	0.44	-0.72	8.08	70	-214	0.6	-1.9
	EAGG	4,727	-0.49	-0.98	-2.30	-1.37	62	391	1.3	8.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926	3.70	12.04	18.61	28.47	292	372	10.0	12.7
	TAN	1,831	3.04	14.36	9.57	28.21	113	479	6.2	26.1
Environment	QCLN	811	4.79	20.00	23.86	44.35	78	59	9.6	7.3
	SPYX	2,738	1.33	6.79	9.55	10.66	38	18	1.4	0.7
	CRBN	1,105	0.23	4.56	6.39	9.75	0	23	0.0	2.1
	KRBN	137	1.43	3.64	7.23	-5.76	-2	-27	-1.1	-19.5
Social	BLES	154	-0.42	1.67	1.41	11.28	9	9	6.1	6.0
Governance	SHE	315	0.56	10.96	12.75	16.36	-4	-10	-1.1	-3.2
	NACP	73	1.31	10.48	13.94	19.03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24	7.4	37.1	54.3	126.8	-29.8	-29.8	-13.3	-13.3
FOCUS ESG 리더스	87	2.2	18.4	27.0	56.6	-53.2	-53.2	-61.1	-61.1
KODEX 200ESG	1,541	9.5	39.6	58.6	134.5	-1.2	165.8	-0.1	10.8
KBStar ESG 사회책임	4,359	8.8	42.6	64.0	145.4	-1,028.7	694.2	-23.6	15.9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57	9.0	40.6	59.5	134.9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213	6.1	35.1	49.2	94.3	-9.1	-22.0	-4.3	-10.3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625	7.3	30.9	46.0	109.3	-52.8	-52.8	-8.5	-8.5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53	7.2	31.0	46.1	109.0	0.0	-18.5	0.0	-7.3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52	7.4	31.3	46.5	109.8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5.15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6.04.29) 리튬의 80분의 1…中 연구진 '철 배터리' 성능도 잡았다-Impact-on

원가 80분의 1…철 배터리, 수명까지 잡았다
저장 구조 바꿨다…대규모 전력 저장 겨냥
"실험실 성과…상용화까지 검증 필요"

(26.05.08) 아르셀로미탈, 탈탄소 약속 후퇴 지적…주주환원에 밀린 기후투자-Impact-on

2030 감축 목표 절반 이하로 낮춰…유럽 목표는 삭제
36억유로 공적 지원…수소환원제철 투자 결정 없어
기후투자보다 주주환원…자본 배분도 도마 위
CBAM은 환영, ETS는 완화 요구

(26.05.11) 인도 재벌 타타·JSW, 중국산 배터리 독립에 10억달러 베팅-Impact-on

JSW 그룹, 5억 달러 투자해 '전기차 현지화' 허브 구축
중국 기술 통제에 긴장하는 인도

S (사회)

(26.05.07) "모두에게 같은 전기" 끝나나…AI에 흔들리는 美 전력시장-Impact-on

3년 만에 11배 뛴 전력 확보 비용
가격 상한 걸자 투자 위축 우려
"덜 내면 덜 받는다"… 안정성 차등화 검토

(26.05.12) 에코바디스, '워커보이스'로 공급망 인권실사 강화-Impact-on

와츠앱·QR·SMS로 익명 제보… "20개 언어 지원"
고충 처리도 디지털화
서류 감사의 한계 보완

G (지배구조)

(26.04.27) 기후 빠진 G7, 금융으로 대응한 EU…기후 공조 '두 갈래'-Impact-on

"단결 우선" 전략…기후 대신 합의 가능한 의제 집중
EU, 200억유로 녹색채권 펀드 출범…글로벌 금융 전략과 결합
"기후 빠진 G7"…6월 정상회의서도 합의 제한 가능성

(26.04.28) "10억 명의 식탁을 바꿔라"…아프리카 '청정 조리' 시장 새 투자처로 급부상-ESG경제

전기·도시화·핀테크 결합… 새로운 에너지 시장 부상
연 12조원 투자 필요… 공급망·인프라 확대 시급
건강·기후·경제 효과까지… '숨은 블루오션' 주목

(26.04.30) 패소는 피했지만…우드사이드, 그린워싱 소송 후 '탄소중립' 삭제-Impact-on

탄소상쇄를 온실가스 감축한 것으로 포장…
비중 90% 차지하는 스코프3는 범위에서 제외
소송은 끝났지만…화석연료 사업 확대에 맞선 원주민·환경단체

(26.05.04) 대기업집단 순이익 39% 늘었지만…상위 5곳이 70% 차지-ESG경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익 156.8조…전년比 43.8조 증가
상위 5개 집단 순익 비중 70.5%…2년 새 5.7%p↑
반도체 회복에 SK·삼성 호조…산업 전반 회복엔 한계

(26.05.06) "RE100 하라더니 요금은 깜깜이"…정부, 재생에너지 직접PPA 손질 나선다-Impact-on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라"…기업들 직접PPA 꺼렸다
"한전 중심서 민간 중심으로"…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키운다

정책 ESG 뉴스

ESG

(26.04.29) 국힘, ESG 법정공시 법안 발의...여야 법제화 방향 일치-ESG경제

국힘 법안, ESG 공시 자본시장법 편입…법적 구속력 강화
사업보고서 포함 의무화…공시 위반 시 형사책임 부과
여야 모두 법정공시 추진…정부 로드맵과 간극 해소 주목

(26.05.06) 공공기관 공시도 '양보다 핵심'…IPSASB, '다 넣기식 공시' 손질-Impact-on

"기준 항목 채우기만 해선 안 된다"
"정보 부족 아니라 정보 과잉이 문제"
민간 공시 개혁 흐름, 공공·ESG 영역으로 확산

E (환경)

(26.04.30) EU AI 규제 협상 결렬…기업 불확실성만 커졌다-Impact-on

"기존 규제 있으면 AI법 면제"…적용 범위 싸움에 협상 붕괴
완화도 확정도 아닌 '중간 상태'…기업은 '규제 혼란' 직면

(26.05.08) 정부 첫 대미투자 윤곽…핵심은 '트럼프 관세 15% 방어-Impact-on

美 관세 리스크 관리 총력…캐나다 잠수함 협력도 확대

S (사회)

(26.04.27) AI '미토스', 대규모 사이버 취약점 탐지…英·日 금융·산업 방어망 긴급 가동-Impact-on

"이미 발등에 불"… 日, 금융권 사이버 TF 긴급 출범
英, AI 기업과 손잡고 '국가 사이버 방어망' 구축

(26.05.04) 중국 법원, "AI 도입 이유로 직원 해고 못한다"...IT기업에 배상 판결-Impact-on

월 250만 원 받던 품질관리자, AI에 자리 내준 뒤 강제 강등
AI 경쟁 속 '노동 안정' 우선한 중국

(26.05.11) 기술 탈취 손실만 1조원 넘는데…정치권 최대 '5배 배상' 칼 빼들었다-Impact-on

고의적으로 기술 탈취 땐 최대 5배 배상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사전 증명 강화

G (지배구조)

(26.04.28) 주주권 키웠더니 행동주의 폭주…일본, 다시 조인다-Impact-on

지배구조 개혁이 키운 행동주의…제안 52개사로 최대
기업 반발 커지자 규제 카드 꺼냈다…주주제안 요건 손질
"영향 제한적"…규제 논의에도 행동주의 지속

(26.05.07) 미 상장사 공시, 분기서 반기로…정보 공백 우려-Impact-on

10-Q 대신 10-S…분기보고 체계 손질
기업 부담은 줄지만, 투자자 정보 공백은 커져

(26.05.12) EU 주주권 지침(SRD II) 개편 논의…기후 안건 확대 vs 연기금 추가 의무 반대-Impact-on

EU, 주주권 지침 개정 검토…국경 간 투자 절차 간소화가 핵심
기후 안건에 힘 싣는 투자자들…주총 문턱 낮추기 요구
연기금 업계, 추가 공시·관여 의무에 반대…투자 구조 반영해야

일반 ESG 뉴스

ESG

(26.05.04) "녹색 약탈" 경보...탈탄소 프로젝트, 원주민 생존권 위협-ESG경제

수력·풍력·태양광·조림사업서 토지권 침해 25% 노출
E(환경) 위해 S(사회) 희생시키는 G(거버넌스) 작동
아시아에 집중…인도·동남아·중국 등 사례 다수 확인

(26.05.06) AI와 ESG목표 딜레마...지속가능성 전문가 195명의 생각은? -Impact-on

81%는 "AI가 업무 바꿀 것"…실제 활용은 '이메일·요약' 수준
"ESG 목표 달성,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AI 피로감 속 의도적 중단도

E (환경)

(26.04.27) 전기차보다 최대 2배 비싼데…EU, 바이오연료 인정 놓고 정면충돌-Impact-on

전기차 대비 최대 2배 비용…"운전자 부담 확대"
"제로배출 인정" 요구 충돌…공급 한계·항공과 경쟁

(26.04.28) 英 AI 데이터센터 계획, 전력 수요 계산부터 '흔들'-ESG경제

과학기술부 6GW...에너지부 528MW 전망과 큰 차이
AI 성장구역 한 곳만 500MW...전력 수요 과소평가 논란

(26.04.29) 싸다고 샀는데 더 비싸다…PHEV, 유지비·연료비 모두 EV에 밀려-Impact-on

"실제 연료비, 제조사 주장보다 3배"
전기차 확산 가속…정책 압박도 확대

(26.04.30) 폐플라스틱이 SAF로 재탄생...영국, 최초 실증시설 가동-Impact-on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온실가스 70% 감축… 상업화 가시권
영국 정부 SAF 의무화 정책 뒷받침

(26.05.08) 美·中 핵융합 전쟁 뛰어든 韓…2030년대 발전 실증 노린다-Impact-on

AI 가상핵융합로 구축…산업 생태계 전환 속도

(26.05.11) 협력사 AI 사고도 원청 책임"…공급망 AI 관리, 법무·감사 영역으로 확대-Impact-on

EU, 원청에 협력사 AI 통제 책임 묻는다
"조사 기업 5곳 중 1곳 이미 당했다"…협력사 AI, 공급망 새 사각지대
AI 거버넌스, 내부감사·법무·리스크 조직으로 본격 확대

(26.05.12) 아시아, 생성형 AI 확산 중심지로 부상…韓 증가율 1위-ESG경제

한국 AI 사용자 비중 43.2% 증가…태국·일본도 빠르게 늘어
전 세계 생성형 AI 사용률 17.8%…아시아가 확산세 주도
언어 성능·멀티모달 개선이 사용 확대 견인…AI 격차는 확대

S (사회)

(26.05.07) 글로벌이 주목하는 韓사회적경제...정책·시장·시민사회 결합모델 부상-ESG경제

사회적가치연구원·SEWF, 한국 사회적경제 성장 과정 분석
정부 지원 중심에서 기업·투자기관·시민사회 참여로 확장
SPC, 사회성과 보상 모델로 글로벌 사회금융 사례 부상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NC	-	-	-	-	-	-	-	-

NC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5-18	매수	360000		
2026-04-15	매수	360000		
2025-11-26	매수	310000	-29.53	-19.84
2025-11-03	매수	260000	-16.65	-6.92